

## 질문. 강륜희

- Q1. 코로나와 펜데믹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맺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전시를 하고, 관람하는 방식까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디어아트 설치 작업을 하는 방앤리 작가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펜데믹 이후 작업이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 Q2. 두 분은 어떠한 지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미디어아티스트로서 협업을 하게 되셨나요? 사실 협업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로 협업을 유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Q3. 작업에서 네온사인이 많이 등장 하는데, 작가님들이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건네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하는데 주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네온사인이라는 표현 방식을 선택하셨나요?
- Q4. 작업 노트를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한 드로잉이 눈길을 끕니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 역시 매우 복잡한데요. 작업에서 두 분은 서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시나요? 모든 과정을 함께 동일하게 작업하는지, 아니면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Q5. 〈Friends in the living room〉이나 〈Transparent Study〉 작업의 무대는 거실과 서재입니다. 이 장소들은 매우 가정적이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공간들이며, 집을 이루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보고 있으니 작가님들이 실제 생활하는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 대해 궁금해 집니다. 혹시 그러한 공간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그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 Q6. 인터뷰나 여러 자료를 보았을 때, 많은 미디어 아트 작가님들이 그러하듯이 방앤리 작가님들 역시 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그에 따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업하시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작가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어떠한 미디어 매체의 변화나 발명이 가장 크게 작업에 영향을 미쳤나요?
- Q7. 작가님들의 여러 작업을 살펴보았을 때, '우정', '관계성'이라는 주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듯 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작가님들이 협업이라는 형태로 작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매체와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인간이 맺는 관계의 형태가 급격히 다양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부터 시작된 듯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나요?

Q8. 작가님들의 작업을 보았을 때, 마치 관객은 자신이 한 극(드라마, 영화, 연극 등 모두 포함)의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것 처럼 느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Freind in the livingroom>을 보았을 때 마치 셜록 홈즈의 거실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작업(<Freind in the livingroom>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도)에 영향을 끼친 드라마나 영화, 연극이 있을까요?

Q9. 방앤리 작가가 전망하는 앞으로 미디어 아트와 예술의 변화 방향이 있으실까요?

Q10. 마지막으로, 방앤리라는 미디어 듀오를 해시태그로 표현한다면 어떤 해시태그를 붙이고 싶으신가요?

질문. 김반석

Q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과 이후, 작가님들의 생활과 작업 환경이 달라지신게 있으실까요?

Q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현재, 사람들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비대면으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체험이 주요한 인터랙티브 아트의 경우 비대면으로 관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다면 어떠한 부분 때문이며 무엇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인터랙티브 아트 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전반에 대한 관람 방식을 포괄하여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Q2-1. 비대면 방식(온라인 전시)이라는 조건 안에서 작가님들께서는 어떻게 작업을 풀어내실지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Q3. 두 분의 작업 방식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은 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작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역할이 정해져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Q3-1. 두 분이 처음 작업을 같이 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Q3-2. 콜렉티브로 협업하고 싶은 다른 분야나 작가님이 있으실까요?

Q4. 우정에 대한 작업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두 분의 우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MBTI가 유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대한 분석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작가님들도 MBTI 검사를 해 보셨나요? 해보셨다면 두 분의 성향이 어떻게 나오실까요? (만약 안 해보셨다면 지금 인터넷으로 간단한 검사 부탁 드려도 될까요?)

Q5. 작업들을 보면서 일종의 무대를 연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lephant in the living room〉, 〈Friend in the living room〉에서는 거실, 〈Transparent Study〉은 서재라는- 익숙하면서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낯선-공간 특수성이 관객들로 하여금 체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할 때 관객들의 수용하는 지점에 대해서 어느정도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고려하시면서 작업을 하시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어느 정도로 낯설게 받아들여주시기를 원하시나요?

- Q6. 작업들을 보면 언어를 시각적인 이미지로써 활용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광섬유로 설치하는 방식 등) 〈FAQ〉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언어로 처리되거나 변환되는 지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와 언어의 상관 관계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언어적인 요소를 어떻게 작업에 녹여내게 되셨는지와 콜렉티브 안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Q7. 동시대의 사회현상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신다고 느꼈습니다. 〈Lost in Translation〉의 경우 구글 번역 서비스 유료 전환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가져와서 작업으로 풀어내셨는데, 사회현상에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질문'은 작가님 스스로에게 던지시는 질문임과 동시에 관객들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작가님이 작업을 통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얻으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Q7-1. 사실 미디어아트라는 장르가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지. 그렇다면 모든 미디어아트는 질문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작가님과 다른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접하게 되면서요)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 Q8.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미디어아트라는 영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비례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 Q9. 미디어아트의 경우 한국과 다른 나라의 작업 환경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이후에 한국에서 작업들을 진행하시는 과정을 통해, 더불어 해외에서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지점들이 작가님들에게 더 흥미로운 또는 작업하기 편한 환경인가요?
- Q10. 개인적으로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연상 되는 내용은 새로움과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계속 새로움을 느끼고 발전해야만 하는 걸까요?

## 질문. 문주영

Q1. '방앤리'는 현재 실험적인 설치 프로젝트와 시대별 미디어 기술과 접목하는 작업들을 해 오고 계신데, 미디어 아트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공부 과정 중 미디어 아트와 테크놀로지, 예술과 기술의 관계와 방향성에 관해 답을 얻으신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2. '방앤리'라는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의 결성이 예술적인 사고와 미디어아트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잘 맞았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함께 작업을 할 정도로 맞는 친구를 만난다는 건 참 행운일 것 같아요. 오래 함께 해 오셨던 만큼 서로에게 있어서 상대가 참 각별한 존재일 것 같은데, 서로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관계인지 각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Q3. 작품활동 이외의 시간에는 어떤 취미 활동을 즐기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작업 이외의 활동도 두 분이 함께 즐기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 작품 구상

Q4. 방지영 작가님은 문학을 전공하셨는데, 문학을 공부했던 경험과 문학에 대한 작가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설치 작업을 하는데 있어 색다른 깊이를 더 해 준다거나 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을 하실 때마다 그런 관심사들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까요?

Q5. 그렇다면 문학과 같은 텍스트를 통해 표현하는 것과 지금처럼 설치 작품을 통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어떤 것 표현해 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Q6. 최근 인터뷰에서 2005년 세라믹 작업처럼 관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작품 구현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시각뿐 아닌 촉각의 관여가 작품 의미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해낸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작업 방식

Q7. 작가님의 설치 작품들을 보면서 설치물이 만들어졌다는 느낌보단 하나의 해체주의적인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도 새로운 '구조물을 만든다'는 느낌보단 어떤 '공간을 연출한다'는 느낌으로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Q8. 작품들을 보면 영화 세트나 무대장치에서 쓰이는 소품이 쓰이기도 하고 극장이나 무대를 구현한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소품이나 방식을 선택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9. 작가님 작업을 하실 때 주제와 작품에 담길 의미를 먼저 거의 완벽하게 생각하신 후 작품 형태를 구상으로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형태를 짜두고 깊이를 더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Q10. 작품 제목을 지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선희라

- Q1. 방자영과 이윤준으로 구성된 2인 컬렉티브, '방앤리'라는 그룹명이 직접적인데 이름을 방앤리로 설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방앤리 외에 다른 후보들이 있었나요?
- Q2. 작가님의 작품에서도 '우정'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는데요, 우정은 친밀함 외에 협동적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두분 사이의 협력은 물론이고 미디어 아트의 특성상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의 협업이 불가피한데 작품 제작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 Q3. 두분이 예술에 대한 사유와 미디어 아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공감대로 함께 작업을 하시게 되었고, 방앤리로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서로의 작업 방식이나 선호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언제나 서로의 아이디어나 대화가 작품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업에 대한 의견이 달라 실현되지 못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으신가요?
- Q4. 작품 제작 이외의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시나요? 그런 시간들이 작품에 영향을 끼치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업에 녹아드나요? 작품의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 Q5.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점들의 반응 속도는 언제나 달라왔고 그 격차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의 이면은 고려되지 않은 채로 편의성은 쉽게 수용하며 의존성은 높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반 대중에 속하는 관객들은 작품 속에 담긴 기술의 내용에 대한 비평적 메시지를 읽기에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이 갖는 작품 해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Q6. 포스트 코로나는 기술 의존성을 가속화하게 되고 이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이 작가님들의 관심과 작업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 Q7. 작업에 많은 리서치와 연구가 수반되는 만큼 내부적인 자료로만 사용하기 아쉽거나 작품과 함께 제시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자료가 있기 마련인데, 이전 전시에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아카이브나 프로그램의 구상이나 실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또한 이번 미디어데믹을 통해 특별히 보여주고 싶으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Q8. 작품에 사용된 레퍼런스가 보여주는 은유와 거실과 서재와 같은 무대 세팅이 연극적인 느낌을 주는데 하나의 극과 같은 작품 연출이 작가님들의 어떠한 관심사나 의도에서 비롯된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Q9. 무대 연출과 같이 작품을 전시하는데 있어 전시장을 적극적으로 점유하고 공간을 확장시킨다고 생각되는데 작품의 디스플레이와 공간의 관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10.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나 활동이 있을까요?



## 질문지 최종본

- Q1. '방앤리'라는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의 결성이 예술적인 사고와 미디어 아트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잘 맞았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방앤리가 생각하는 미디어 아트의 사회적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Q2.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구조물이 만들어졌다는 느낌보단 하나의 해체주의적인 '공간'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구조물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어떤 '공간을 연출한다'라는 느낌으로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Q3. 〈Elephant in the living room〉, 〈Friends in the living room〉의 거실, 〈Transparent Study〉의 서재와 같이 영화 세트나 무대장치에서 쓰이는 소품이 쓰이기도 하고, 극장이나 무대를 구현한 것처럼 보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품이나 방식을 선택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Q4. 〈Supermacht!!〉, 〈Alive, son of awake〉, 〈REMEMBER〉등 여러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네온사인은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 네온사인이나 조명처럼 텍스트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 책과 같은 인쇄물 속 텍스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Q5. '방앤리'는 미디어 아트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공부 과정 또는 작가 활동 중 미디어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관계와 방향성에 관해 답을 얻으신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Q6. 〈Lost in Translation〉에서는 구글 번역 API 서비스의 중지로 발생한 변화를 작업화하셨습니다. 방앤리 작가님들은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업하신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기술 자체의 발전과 미디어아트 작업에 쓰이는 기술의 발전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Q7.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유행이 끝나거나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된 매체로 인해 작업에 지장이나 변화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 Q8. 사전 인터뷰에서 2006년 〈Synesthesia〉의 세라믹 작업처럼 관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작품 구현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각만이 아닌 촉각의 관여가 작품 의미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해낸다고 생각하시나요?

Q9. 두 분은 작품 제작 이외의 시간에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하며 지내시나요?  
그런 시간이 작품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업에  
녹아드는지 궁금합니다.

Q10.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앤리 작품의 대부분은 관객이  
직접 공간에 들어가 작품과 대면하고 소통하며, 참여하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비대면이라는 현재의 관람 형태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변화를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작가님들의  
작업이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 마지막으로 '방앤리'라는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에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어떤  
키워드를 붙이고 싶으신가요?

## 작가 소개

### 방앤리

방앤리는 방자영과 이윤준으로 구성된 2인 컬렉티브이다. 뉴미디어 아트  
설치를 바탕으로 전개되어 온 이들의 프로젝트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키네틱 라이트, 센서 기반 악기 등이 등장하는 실험적인 무대와 닮았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변형되는 설치는 가변적이며 작품의 재배치에 따라 또 다른 면으로  
확장되면서 일종의 프랙털 구조를 만든다. 대부분 부조리한 상황이나 모순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주제는 역사적 자료와 허구적 속성을 통합하여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관계, 우정과 협업의 개념을 재해석한 내용으로 반영된다.  
방앤리의 작업은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 이탈리아 로마 21세기  
국립현대미술관, 프랑스 마르세유 라 프리쉬, 중국 상해 현대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아르코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대안공간 루프,  
토탈미술관 등에서 전시되었다.